

# 보성 청년 크리에이터, 별교 역사·문화 브랜드 구축

### 군, 전남형 청년마을 공모 선정...3년간 3억원 투입 가치 발굴·경제 활성화 기대...청년 정착 기반 확대

보성군이 청년 크리에이터를 통해 별교의 역사와 문화 브랜드 구축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역 청년단체인 ㈜라이프도스트가 최근 전남도가 주관한 '2026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보성군은 총 4개의 청년마을을 운영하게 돼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다 수준을 기록했으며, 행정안전부 청년마을과 전남형 청년마을을 모두 운영하는 전남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올해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는 도내 13개 청년단체가 참여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이 선정됐다.

사업 수행기관인 라이프도스트는 별교에 정착한 청년 4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자체로부터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청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이 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청년마을의 명칭은 '퍼스트펄린 마을'로, 무리중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펄린처럼 낯선 지역에 과감히 도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담고 있다.

라이프도스트는 6월부터 3년간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총 3억원을 지원받아 별교읍 태백산맥문화거리 일원을 거점으로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퍼스트펄린 마을'을 중심으로 별교의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활용

한 콘텐츠 발굴과 브랜딩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전문 크리에이터 대상 워크숍 및 디자인 퀘스트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업체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 지원, 지역 데이터 수집·활용 키오스크 플랫폼 구축, 지역 문화자산 아카이브 출판 및 전시 등이 추진된다.

특히 전국의 디자이너, 개발자, 브랜더 등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별교에 머물며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특산품과 소상공인을 위한 브랜딩 결과물을 창출하는 등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전남형 청년마을 선정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들어오는 보성군을 만들기 위해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imth66@gwangnam.co.kr



지역 청년단체 ㈜라이프도스트 신성영 대표가 2차 현장심사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 광양 백운산 계곡·해비치로 달빛해변 피서지 '주목'

### 자연 속 휴식·야간관광 콘텐츠 등 여름 관광지로 인기

광양 백운산 계곡과 섬진강, 배알도, 해비치로 달빛해변 등이 산·강·바다·야경을 아우르는 여름 관광지로 주목 받고 있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 해발 1222m의 백운산은 동곡·어치·성불·금륜 등 4대 계곡이 이어져 시원한 계곡물과 울창한 숲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섬진강 일원에서는 남파랑길 광양 구간을 따라 걸으며 망덕포구와 운동주유고 보존 정병옥 가옥 등 역사·문화자원을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광양진와이어 '섬진강별빛스카이'에서는 섬진강 경관을 감상하며 체험 활동이 가능하다.

배알도에서는 배알도 섬 정원과 해맞이대리, 별해는다리를 따라 걸으며 섬진

강과 광양만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배알도별빛야영장에서는 캠핑과 카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별빛캠핑미션'에 참여하면 별빛 캠핑 굿즈도 받을 수 있다.

야간에는 해비치로 달빛해변에서 광양만과 이순신대교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해비치로 달빛해변은 광양만을 따라 조성된 수변 공간으로 산책로와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해비치로 달빛해변에서는 매일 둘째·넷째 주 금·토요일 '달빛365'가 운영된다. 행사장에

서는 버스킹 공연과 플라마켓, 푸드트럭 등을 즐길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은 백운산과 섬진강, 광양만을 중심으로 산과 강,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낮에는 시원한 계곡과 강변, 바다를 즐기고 밤에는 해비치로 달빛해변의 야경과 '달빛365' 등 야간 관광 콘텐츠를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섬진강별빛스카이



해비치로

## 곡성, 농지 공익 기능 강화...전수조사 추진

### 임차농 보호센터 운영도

곡성군은 지난달부터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농지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전용·휴경·무단 점유 등의 문제를 발견해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약 6373ha, 5만 4373필지이며, 대상 필지를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조사한다.

먼저 7월까지 실시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AI분석 등을 이용해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이용 현황을 파악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기본조사가 끝난 이후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는 기본조사에서 심층 대상으로 분류된 필지와 10대 심층 조사군에 해당하는 필지를 조사한다.

대상 필지에는 읍·면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경작 여부 및 이용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10대 심층 조사군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내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중 발급,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농지가 해당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 휴경 및 불법 임대를 점검해 농업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gwangnam.co.kr

## 고흥, 릴레이 문화예술 무대 마련

### 19·24일 지역 정서 담은 창작공연 선봬

고흥군은 6월 문화예술 공연으로 고흥군 전속예술단의 단오날 영물공연 '전설이 된 허수아비'와 2026 예술공연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작 'SWIM: 바다가 된 극장'을 선보인다.

먼저 단오를 맞아 마련된 영물공연 '전설이 된 허수아비'는 지난해 말 선보인 제18회 고흥군 전속예술단 정기공연을 다시 무대에 올리는 작품으로, 오는 19일 오후 4시에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사라져가는 농촌의 풍경, 자연과 인간의 관계,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낸 창작 무대이다. 허수아비, 정령, 할머니와 손녀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등장해 웃음과 감동을

전하며, 허수아비가 생명을 얻어 펼치는 역동적인 군무와 정령들의 축제 장면은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오후 7시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는 피아노 5중주 공연 'SWIM: 바다가 된 극장'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2026 예술공연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서정적인 음악과 영상예술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관객들을 거대한 자연의 세계로 초대한다.

특히, 고흥의 산과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연주와 입체적인 무대 연출이 결합된 공연장 전체가 마치 일렁이는 바다로 변한 듯한 공감각적 몰입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김두성 기자



## 송광사에서 '천년산문 속 치유' 체험하세요

### 순천, 9월까지 순례길 트래킹·빠빠용의자 만들기 등 운영

순천시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2026 전통산사 활용사업' 하나로 오는 9월까지 순천 송광사 일원에서 '송광사, 천년산문 속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천년고찰 송광사가 지닌 수행과 치유의 가치를 현대적인 체험 콘텐츠로 재해석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산사를 보다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16국사 순례길 트래킹, 빠빠용의자 만들기, 지역청년과 함께 만드는 송광사 보드게임 등으로 운영된다.

먼저 '16국사 순례길 트래킹'은 송광사와 불일암, 천자암 등을 잇는 국사로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순례길에 담긴 의미와 수행 문화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으로, 초급·매니아 코스로 나눠 운영된다.

7월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예비문 화유산 '빠빠용의자'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시간에는 법정스님의 '무소유'에 대한 실천적 의미와 가치를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순천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송광사 보드게임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청년들은 송광사를 주제로 한 보드게임을 직접 기획 및 개발하고, 완성된 보드게임을 추석 연휴 첫날 송광사에서 전시와 체험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운영사 홈페이지(showritage.co.kr)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10-5707-2354)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 한국버섯학회 우수발표자상 수상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한국버섯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버섯군사체를 활용한 팻푸드 소재 등 3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9일 장흥군에 따르면 한국버섯학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버섯의 향해: 과학에서 창조경제미래로'를 주제로 개최해 버섯 산업의 최신 연구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버섯 산업 발전 전략, 기능성 소재 개발, 버섯군사체 기반 산업화, AI 활용 스마트 재배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가 발표됐으며, 연구자 및 버섯 생산 주체간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 버섯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버섯군사체를 이용한 한약재 팻푸드 소재의 유용 성분' 연구 결과를 발표해 우수발표자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표고버섯 균주 및 자실체 부위별 베타글루칸 함량 비교 분석'과 '다양한 버섯 군사체를 활용한 하수오 발효물의 최적 제조조건 연구'를 발표해 버섯의 기능성 소재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가능성 향상 방안을 공유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버섯 및 식의약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과 산업화 연구를 통해 지역 버섯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311@gwangnam.co.kr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한국버섯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버섯군사체를 활용한 팻푸드 소재 등 3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